

악덕상인 고발센터 운영으로 유통체계 정립을...



“상인 등록제”, “악덕상인 고발센터” 운영으로 유통을 바로잡자고 주장하고 있는 임재룡 지부장

지부 위상과 회원 권익에 앞장

임재룡 지부장은 비록 양계 사육규모가 다양하고 전체 수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지 않더라도 회원들의 단합이 어느 지역 못지않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부의 위상도 타 축종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높아져 김포시와 축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임재룡 지부장은 지난 2001년 김포시로부터 농어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양계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현재 채란업에서는 후장기 제도

김포채란지부는 지난 '70년대 말 현재 김포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재룡사장을 비롯 본회 이사로 활약중인 윤형수 사장 등 김포지역에서 양계를 하기 시작한 5~6명의 농가를 중심으로 계우회가 결성되면서 태동하였으며, 현재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축협통진지소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김포·강화지역은 최근 도시화로 인해 양계업을 영위하는 농가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김포·강화지역은 채란업을 하는 농가가 54개 농가로 100여 만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중 김포채란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가는 44개 농가로 전체 85만수의 규모로 몇 천수부터 10여 만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를 가진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 계란유통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란유통협회와 연계하여 “상인 등록제 실시”, 발표가격에서 20원의 D/C(할인) 마지노선을 책정하고 이를 어기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악덕상인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유통의 불합리를 막아보자는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계란 우수성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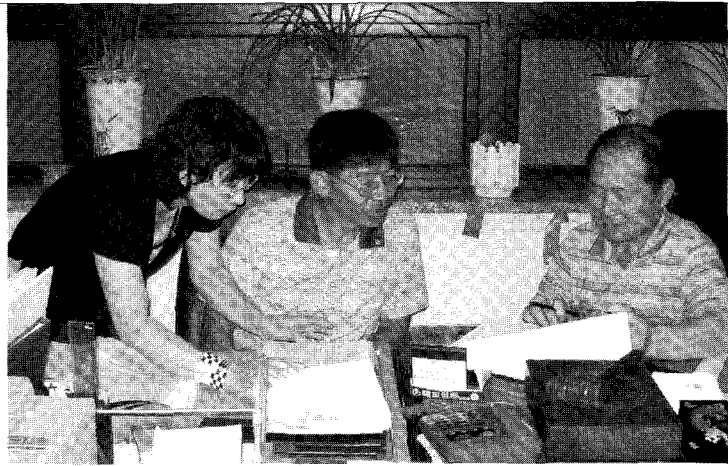
김포채란지부는 계란소비 활성화에 큰 관심을

기울어오고 있다. 매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계란시식회 및 우수성 홍보 활동은 회원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계란을 기증하여 당일에 생산한 신선한 계란을 삶아서 소비자들에게 시식행사를 하고 나머지 계란은 판매를 하여 지부운영에 보탬을 주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계란홍보 사업은 금년에도 비수기를 맞이하는 여름철에 홍보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금년 양계협회에서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당 5원 견기 운동에도 윤행수 전 지부장이 규모보다 많은 100만원을 제1순위로 적립시키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들도 이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다.

노계도태 사업 활성화 노력

김포채란지부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난좌구입, 약품공급, 노계사업 등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사무실 운영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된



지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좌부터 이인이 사원, 김성대 총무, 임재룡 지부장)

노계도태 사업은 임재룡 지부장이 어렵게 이루어낸 사업으로 J노계도태장과 계약을 맺

어 회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노계를 출하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노계를 처리할 경우 수당 10원씩 적립을 하고 있어 지부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부 회원들은 지난 10일 개최된 지부 정기 월례회의에서 정부에서 파 리방제용 사료첨가제 사용이 금지된데 대해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다시 환원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키로 결의하면서 각 지부에서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 문제해결의 도화선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 임원명단

지 부 장 : 임재룡
 부지부장 : 이효재
 총 무 : 김성대
 고 문 : 윤행수, 장순배
 감 사 : 이해수
 이 사 : 이진유, 박종필, 김용실, 조차행, 한웅상



월례회의를 통해 정보교환 및 지부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지난 10일에 개최된 월례회의 모습)